

여수, 관광객 2000만 시대 앞당긴다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기명 시장 “세계섬박람회 등 활용 관광산업 도약”

남해안 관광거점인 여수시가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 여수 관광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관광객 2000만명·관광경제시장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 트렌드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남해해저터널, 일레븐브리지 개통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지속성장, 도시공간, 섬 특화관광, 역사관광 활성화, 글로벌 휴양관광 등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또 세부 과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관광자원 개발, 관광특구 지정, 축제·마이스(MICE) 산업, 신규 관광·콘텐츠,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등 7개 분야로 체계화해 단계별 실행 계획과 자원 조달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



여수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 여수 관광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응에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춘 상품 개발,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콘텐츠 사업 등을 담았다.

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일레븐브리지 개통에 맞춰 섬 관광자원과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확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관광 발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실행력을 높여 여수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취약계층 복지 사각 해소 ‘앞장’ 사회보장급여 증지·감소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장흥군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권리 구제를 위해 ‘취약계층 생활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취약계층 생활지원 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보장급여가 증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생활 곤란과 심리적 상실감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품 등 긴급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가구별 복지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공적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특히 자격 증지가 급여 감소 가구에 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점검해 누락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군은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생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 총 60가구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복지급여 증지 위기에 처한 54가구 90명에게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등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문수연 장흥군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가 증지되거나 제외된 가구에 직접 찾아가는 대면 행정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광양, 투표 참여 이벤트 실시

광양시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대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분야 시상이다. 주최 측은 2011년부터 매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투표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시는 온라인 이벤트 ‘광양시 응원 (Cheer)’하고, 울. 스!(Cheers!)로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 (http://snsawards.com/vote2025_2/1476789)에 접속해 네이버 간편 로그인 후, 공공부문 ‘광양시청’ 페이지에 들어가 추천 버튼을 눌러 투표하고 응원 댓글을 남긴 뒤, 해당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해 네이버폼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를 완료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경품은 뿌링클 치킨+콜라 1.25ℓ 세트(50명), 올리브영 3만원 쿠폰(50명), 스타벅스 3만원 쿠폰(50명) 등이다.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시는 3일 용강도서관, 8일 중마도서관, 10일 금호청소년문화의 집 등 주요 권역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함평,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 위생 교육. 함평군은 최근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집 11개소, 원아 174명을 대상으로 ‘치카포카 양치질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나주, 봉황농협 배 선별장 현대화 시스템 새단장

농업인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품질·브랜드 가치 제고

나주시가 봉황농협 배 선별장을 새롭게 개보수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나섰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봉황농협 산자유동센터에서 배 선별장 개보수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명수 전남도의회 의원, 최춘욱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각

지역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봉황농협은 공동경영체 육성과 산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2024~2025년 사업을 추진했다.

또 전남도 공모사업인 ‘원예생산기반활력화지원사업’에도 선정돼 3억원을 지원

받아 올해 저온 선별장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중 배와 단호박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하 조절로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롭게 정비된 선별장은 GAP 기준에 맞춰 시설을 현대화하고 40등급의 선별기를 도입해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주 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풍년 기원’ 조기협쌀 수확 시작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순천시가 ‘순천 조기협쌀’의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 옥벼’ 수매를 시작으로 24~25일 ‘고시히카리’, 9월 1일부터 ‘골드퀸2호’ 수매를 진행해 총 580t을 수확할 예정이다.

‘순천 조기협쌀’은 1959년 해룡면 구상마을에서 조기재배가 시작된 이후 66년의 전통을 이어온 순천 대표 브랜드 쌀로, 현재 해룡면·별량면 일원에서 76농가가 82.2ha 이상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진옥벼’와 ‘고시히카

리’ 품종에 더해, 신품종 ‘골드퀸 2호’를 도입해 재배농가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고품질 협쌀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

시는 고소득 전략작목인 ‘순천 조기협쌀’ 육성을 위해 매년 종자 구입비, 공동육묘비,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 수매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수확한 조기협쌀은 시민들께 협쌀을 가장 먼저 제공하기 위한 순천시와 농가의 공동 노력의 결과다”며 “앞으로도 순천 조기협쌀을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담양,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개최

담양군이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을 개최하며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이 개최됐다.

자치경찰 안전대학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범 죄예방 수칙에 대한 직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경찰청, 수사연수원, 반부패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인 임옥섭 전남

경찰청 경무과 경위를 초빙, 생생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담양 구현에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도내를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담양=조성욱 기자 jnwnews@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레크와 함께 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